

중국사회뉴스

### 아이폰사용 직원 승진기회 '박탈'

최근 중국의 한 기업체가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중국 브랜드인 화웨이폰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웨이의 명완저우(孟晚舟) 최고재무책임경영자(CFO)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화웨이 제재설'이 퍼지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중국 기업들이 애플 제품 제재 및 화웨이 제품 지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루왕즈쑤(鲁网资讯)은 최근 저장성의 한 업체의 파격적인 광고문을 보도했다. 광고문에 따르면, 애

플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을 사는 직원에게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다. 반면 화웨이 제품을 사는 관리직 직원에게는 제품 가격의 50%를 보조해 준다.

안후이(安徽)성 푸양(阜阳)시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현재 화웨이 휴대폰을 쓰는 직원이 많아지고 있으며, 화웨이 제품이 애플보다 못할 게 없다"면서 "오히려 화웨이 제품이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토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 또한 회사의 이 같은 방침을 적극 지지 하는 반응이다.

### "안 예뻐서" 남몰래 가로수 80그루 베

중국 시안(西安)에서 한 남성이 톱으로 가로수 80여 그루를 베어버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안 어이청구(鄂邑城区)에 있는 가로수들이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베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까지 두동강이 난 가로수는 총 80여 그루로 경제적 손실은 30만 위안(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이 CCTV로 확인한 결과 범인은 톱을 든 30대 남성이었다. 남성은 길거리에 아무도 없

는 새벽 시간대를 골라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수동 톱으로 나무를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손으로 얇은 나무 가지를 직접 부러뜨리거나 톱으로 두꺼운 나무를 베다 포기하고 자리를 뜨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가로수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나무가 예쁘지 않고 싫어서"라고 답해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관할 경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우울함을 풀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7인승에 28명 태운 유치원 차량 비난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7인승 봉고차에 무려 28명의 원아를 태운 사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었다. 27일 중신망(中新网)에 따르면 광시성 리우저우(柳州) 시에서 교통경찰이 교통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한 차량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일 흔히 '빵차(面包车)'라 불리는 우링(五菱) 7인승 승합차를 불러 세우고 문을 연 순간 안에는 아이들이 빼곡히 서거나 앉아있었다. 조사 결과 차량 안에는 총 28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운전

자 여성을 포함하면 총 29명이 7인승 차량에서 그야말로 '구겨져' 있었다.

운전자 웨이(韦)씨는 차량 안의 아이들은 그가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이라고 답했다. 최근 학부모들이 농사일로 아이들 하원시간에 오지 못해 직접 하원을 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집까지는 약 4km 정도로 그리 멀지 않아 하게 된 일로 "단속에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웨이씨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고 탑승 정원을 크게 초과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줌마이야기

### 먹을만한 한 가지

이미 오랜 추억이 되었지만 우리가 막 중국에 왔던 그 시절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됐지만 그뻐 우리나라 70년대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지금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낙후된 듯 하지만 순수한 적어도 나에겐 어린 시절로 돌아간듯한 행운과도 같은 때였다. 하지만 이런 추억이 없는 우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누구나 원하면 어느 학교든 입학이 가능했던 그 시절 우리 아이들을 중국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걸 목표로 처음부터 로컬 학교로 입학시켰다. 지금이야 중국학교 입학이 힘들지만 그뻐 로컬학교를 다닌다는 건 문화나 음식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한국사람에겐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었지 싶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왔으니 학습도 문화도 음식도 모든 것을 익혀 중국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중국급식을 선택했다.

어느 날 신기하게 불평이 쏟아질거라는 예상과 달리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물었다. 급식을 잘 먹고 있는지 혹시 입에 맞지 않아 굶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기름에 말아 놓 것 같은 것도 있지만 늘 한 가지는 먹을 만 한 게 있어요."

뜻밖의 아들의 대답이 기특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른의 노파심과 달리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작은 긍정의 언어들도 가끔 흔들리는 확신과 내 삶에 충전이 되곤 했다.

'한가지는'이란 단어가 많은 의미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니 지나칠 수도 있는 이 말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나에

게 순간순간 깨달음을 준다.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많이 가진 아이가 나누지 못하면 적이 생기고 오히려 안 가진만 못한 모습을 보며 사실 과함은 부족한만 못하다는 말처럼 벌어지는 많은 불미한 일들이 부족함 보다 과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달력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요즘은 생각이 많다. 한해 동안 감사와 새해의 희망을 기대하기엔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하지만 절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 사람만이라도 곁에 있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기대할 수 있듯이 내 삶이 불행하고 원망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아닌 분명히 딛고 일어날 무엇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입에 맞는 반찬이 없어 허기져 불평하기보다 먹을만한 한가지를 의지해 식사를 하고 그 힘으로 하루의 학교 생활을 했던 아이처럼 분명히 있을 감사한 것들을 한가지씩 찾아 그것으로 새해 희망을 꿈꾸며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에게 부족하지만 기쁨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우린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부끄러운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뜻밖의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 무엇 때문에 힘들고 절망했지만 그 상처들이 진솔된 것으로 누군가를 치유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고 슬픔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 행복해 지더라는 말도 있듯이 내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보다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같이 있어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먹을만 한 그 한가지가 되고 싶다.

(pbdmom@hanmail.net)

##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명품 해충방제서비스는 세스코 赛思科 입니다

세스코의 과학적이고, 체계화 된 방제서비스로 고객님의 해충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공장   
  요식업   
  가정집

赛思科虫控系统会员  
400-820-1190

세스코 上海市 / 江苏省 / 浙江省 / 安徽省

대표전화 400-820-1190  
上海市 徐汇区 桂平路 333弄 上海桂林科技园 6号楼 603~605室